

## 01. 질문으로 그림 읽기

‘미술시간’ 하면 떠오르는 것은 색종이를 오리고 잘라서 붙여 가며 무엇인가를 꾸미고 만들었던 일, 크레파스가 부러지도록 흰 바탕색이 안 보일 때까지 칠하고 또 칠했던 그림, 엽질러진 물 때문에 망친 그림을 보며 속상해 하였던 수채화 시간 등입니다. 한편 교사 입장에서 “미술 시간”을 생각해 본다면 특별히 공개수업 아니면 그냥 화지와 채색용구를 주고 알아서 그리게 하거나 어떤 사이트에서 출력한 출력물에 색깔만 다르게 칠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교사에게는 숨 고르는 시간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미술은 교과 특성상 창의성과 인성, 나아가서는 지성까지도 신장시킬 수 있는 을 핵심 교과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미술 수업이 체험, 표현, 감상 영역의 유기적인 연계 하에 시각 문화와 소통의 의미를 이해하는 미술 수업, 조사, 이해, 토론이 바탕이 된 미술 수업, 감상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술 수업, 제재 중심이 아닌 단원 중심의 미술 수업으로 변화되었고 이는 2015개정교육과정까지 연계 됩니다. 그러하기에 더더욱 질문을 만들어 묻고 답하는 질문수업의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됩니다. 하지만 교육과정이 개정이 되었다고 해도 일선 현장에서 늘 그래왔던 수업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미술과에서 질문 수업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교육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선 학생들이 미술과 친해지고 그림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그림과 친해진다고 하는 것은 그림에 관심을 갖고 그림과 이야기 나누는 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인간은 시각적 이미지 속에 살고 있고 또 시각화된 것을 좋아합니다. 어릴 때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그림 영역은 아이들과 매우 친숙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미술과목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미술이 주지교과가 아닌 그냥 비주지교과목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원래의 아이들 마음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의 하나, 그림과 친해지기! 오늘은 그림이 말을 걸어오고 아이들은 또 말을 걸며 서로 친숙해지도록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술수업은 아이들의 마음이 풀어지기 쉽습니다. 좀 놀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활동위주의 수업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림과 친해지려면 먼저 친구들과 친해지는 법부터 알아야 합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잘 듣고, 내 이야기를 잘 해야 그림과도 친해지는 법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바로 수업을 진행하기보다는 이런 내용을 먼저 가르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말하는 수업과도 관련이 없는 미술이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풀기위해서 잘 듣기에 대한 이야기부터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술과는 말하기 교육의 장점이 참 많습니다. 미술이 좋은 점은 글자도 사실은 그림에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미술과의 영역이라서 그림처럼 활용을 하면 좋기 때문입니다.

<p>출처: <a href="http://neolearn.tistory.com/">http://neolearn.tistory.com/</a></p>	<p>아이들의 질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 글자는 무엇일까?</li> <li>2. 눈과 귀와 마음이 함께 하는 글자의 의미는?</li> <li>3. 듣는다는 글자를 왜 눈과 귀와 마음이 함께 하는 것으로 했을까?</li> <li>4. 똑 바로 봐야 한다는 것일까?</li> <li>5. 눈을 쳐다봐야 한다는 것일까?</li> <li>6. 귀로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일까?</li> <li>7. 마음심은 마음으로 듣는다는 뜻일까?</li> <li>8. 귀라는 글자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을까?</li> <li>9. 듣는다는 것은 어려운 것일까?</li> </ol>
--	---

아이들은 이렇게 질문을 만들고 짝에게 물어보면서 답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은 것 이었습니다.

듣는다는 뜻의 한자어 <들을 청(聽)>을 살펴보면 귀((耳)로는 상대의 말을 집중하여 듣고, 눈(目)으로는 상대방을 바라보며 그의 눈빛까지를 읽어내는 것, 마음(心)으로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그의 마음을 헤아리자는 뜻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이야기를 잘 듣는다는 것에 대한 마음가짐과 듣는 자세에 대해 서로 생각을 나누며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질문의 힘은 이렇습니다. 글자를 보고도 글자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알아채는 것, 그 시작부터 미술수업이 시작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림과 친해지기는 어른도 쉽지 않습니다. 그림에는 너무 종류가 많거든요. 크게는 서양화에서 동양화까지, 표현 주제에 따라 풍경화, 인물화, 정물화, 등으로 나눌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나 재료, 소재에 따라 구상화와 추상화로 나누기도 하고, 유화, 수채화, 아크릴화, 수묵화, 판화 등으로 나눕니다. 이를 더 세분화하거나 또 다른 창의적인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다면 그 종류는 더 다양해집니다. 또한 입체 표현까지 포함하면 정말 다양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할까 너무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떤 것 하나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어떤 것과도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에게 질문하는 방법 중 하나인 교사가 먼저 제시해주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처음 시작할 때 질문을 만드는 부담감을 줄여주므로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단답 형식으로 아이들이 쉽게 답할 수 있는 것으로 시작을 해 보고 점차 학생들이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두 그림은 모두 세잔의 사과 그림입니다. 세잔이 살아있을 때는 환영받지 못한 그림입니다. 학생들의 눈에 비친 이 그림에서는 어떤 질문이 나올까요?

1. 왜 사과를 그렸을까?
2. 유명한 그림일까?
3. 왼쪽의 사과 색과 다르게 오른쪽은 사과 색을 예쁘지 않게 그린 이유는?
4. 혹시 상한 사과가 아닐까?
5. 먹으면 이상해지지 않을까?

등의 질문이 나왔습니다. 미술사적으로 세잔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본질에 가까운 사과를 그렸다.'라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굳이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질문에 있는 정도만 다루어도 이런 것은 가볍게 다룰 수가 있으니까요.

#### 교사의 질문

세잔은 왜 이렇게 사과를 그렸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답입니다.

1. 다른 사람들과 다른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2. 사과가 시들고 난 다음도 그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3. 겉보기만 예쁜 것을 찾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

세잔이 그린 의도와 비슷한 답을 찾아내는 아이들이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답을 주는 것보다 이 책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어른들의 세계에서 다르게 생각해서 말을 건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준비 안 된 아이들이 바로 질문을 만들고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더욱 어렵겠지요. 그래서 교사는 과제와 연관이 되면서 아이들에게 수업을 쉽게 인도할 수 있는 자료들을 찾으면 좋습니다.

## 02. 그림과 아이들의 삶 연계

그림은 많은 것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하는데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알려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쉽게 질문하는 방법을 알았으면 이제 조금씩 적용을 해 보는 것입니다. 핀란드의 국민 화가 유고 짐베르크가 핀란드의 전설을 바탕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학생들과 많은 이야기들이 가능 할 것 같아서 수업에 사용해 보았습니다. 수업시간이나 부모교육, 상담 등에 사용하기 좋은 그림이라 추천합니다.



학생들의 질문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저 까만 옷을 입은 애들은 저 흰 옷을 입은 애를 데려가면서 왜 표정이 안 좋지?

저 흰 천사는 왜 눈을 가리고 있지?

왜 흰 천사는 저들에게 자신을 데려가라고 하는 듯 하지?

저 천사는 왜 천사들이랑 안 있고, 인간세계에 있지?

왜 저런 자세를 하고 있을까?

사람들이 왜 천사를 끌고 갈까?

저 천사는 영혼일까?

천사는 어디가 아플까?

앞과 뒤에 있는 사람은 사람이 맞을까?

만약 앞 뒤의 아이가 사람이라면 어떻게 천사를 볼 수 있었을까?

천사일까 분장한 사람일까?

세 명은 아는 사이일까?

천사는 날개가 있는데 왜 날아가지 않았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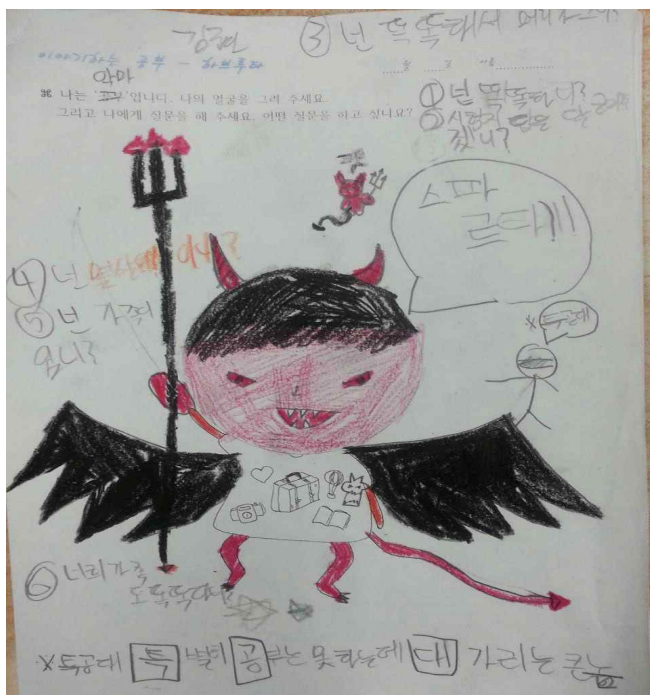
뒤에 있는 남자아이는 우리를 보고 있는 것일까?

왜 맨발일까?

천사가 들고 있는 것은 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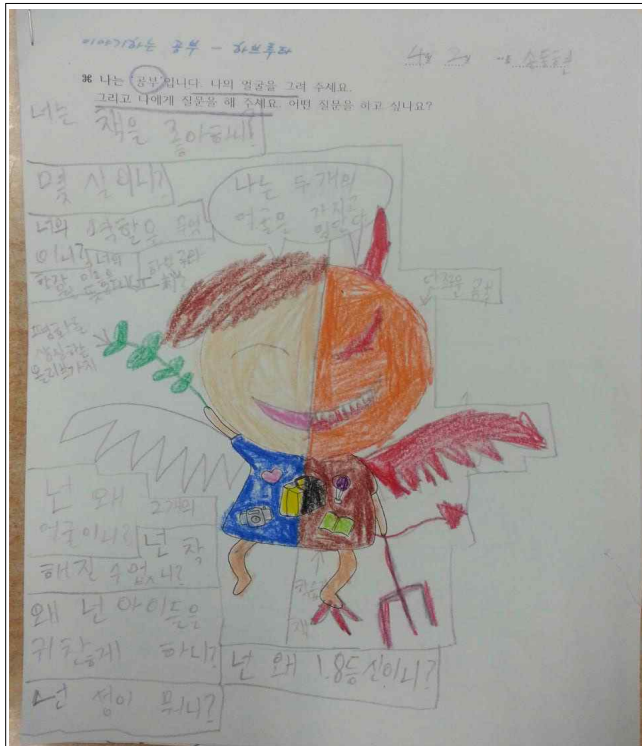
핀란드의 전설에 따르면 작은 산골마을에 사는 두 아이들이 상처 입은 천사를 발견하고 들것을 만들어 마을로 옮겨 왔는데 이를 본 마을 어른들은 '완벽한 존재인 천사가 부상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다. 필시 마녀가 아이들을 홀린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화형을 집행했다고 한다. 그러자 그 천사는 피눈물을 흘리며 하늘로 올라갔고 그 피눈물이 떨어진 자리에서 꽃이 피어났는데 그 꽃이 '영원히 시들지 않는 사랑'이라는 꽃말을 지닌 아마란스라고 합니다. 어쩐지 오늘날 우리 어른들의 모습과도 닮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을 믿지 못하고 우리 마음속에 순수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과 같아서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학생들은 이 천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상처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부와 성적 때문에 어른들에게 상처를 입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가진 상처를 이야기 하고 싶었던 그림이라 자연스럽게 공부에 관한 이야기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의인화 시키고 공부에게 질문을 해보도록 했더니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표현하고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1. 너 똑똑하니?
2. 시험지 답을 알려주겠니?
3. 너 똑똑해서 머리가 좋니?
4. 너 몇 살이니?
5. 너 가족이 없니?
6. 너희 가족도 똑똑하니?

공부를 악마로 그렸지만  
마음에는 책이랑 인형, 카메라 등  
본인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그려 넣었습니다.



1. 너는 책을 좋아하니?
2. 몇 살이니?
3. 너의 역할은 뭐니?
4. 넌 왜 두 개의 얼굴이니?
5. 넌 착해질 수 없니?
6. 왜 넌 아이들을 귀찮게 하니?
7. 넌 왜 1.8등신이니?

이 친구는 공부를 천사와 악마의 얼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공부, 넌 언제까지 날 따라다닐 거니?”라는 질문에 “죽을 때까지.”라는 답을 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공부하라고 억지로 말을 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잘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상처 입은 천사가 학생들에게 말을 잘 걸어주고 있는 것을 보셨겠지요? 어렵게 접근하는 것보다 학생들이 힘들어 하는 것이나 좋아하는 것과 잘 연계를 하면 그림과 친해져서 잘 놀기가 가능해집니다.

결국 그림과 친해진다는 것은 감성을 풍부해 진다는 의미이지요. 주변에서 흔히 보는 것들에게 학생들이 말을 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미술이나 예술이 나의 삶과 별개의 것이라는 것 때문에 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다음과 같은 사진 자료를 보고 질문을 만들기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시인이 된 아이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물방울에게도 말을 걸 수 있는 아이들, 나뭇잎에도 말을 걸 수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답을 찾아가면서 나뭇잎과 물방울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수업은 국어, 과학과 연계한 융합수업으로 가능합니다.





나뭇잎에 이슬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이 그림은 누가 그렸나요?  
길은 왜 생기나요?  
색깔은 왜 다르나요?  
길에 무엇이 있을까?  
내가 이슬이라면 어디로 갈까?  
초록 나뭇잎의 이슬은 몇 개 인가요?  
잎맥은 왜 길이 많이 있을까?  
이슬도 저승으로 갈까?  
왜 잎은 마를까?  
색깔은 왜 변할까?  
이슬아 넌 어디 가니?  
네가 따라 가는 그 길은 어디로 이어지니?  
넌 어디서 태어났니?  
이슬아 넌 무엇을 보았길래 가는 거니?  
이슬아 넌 자살하려고 그 길을 따라 가는 거니?  
우리한테도 길이 있을까?  
물방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내가 물방울이 된다면 어디로 갔을까?  
이슬의 길이 하나일까?  
이슬이 나중에 큰 웅덩이가 되었을까?  
이 그림을 보고 다른 사람은 어떤 느낌이 들까?  
사람도 길이 없으면 죽을까?  
이 나뭇잎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비가 오는 날에 찍은 것일까?  
우리의 길은 중요한 것일까?

길은 어떤 역할을 할까?

다음 활동도 추천합니다. 학생들이 자기 이름을 다양한 재료로 꾸며봅니다. 자존감 향상에 큰 도움을 주는 활동이지요. 기존에는 이 정도의 작업과 몇 가지의 교사의 질문으로 끝낼 수 있지만 친구와 그림을 돌려가면서 친구에게 물어보는 시간으로 하는데 그림을 모둠 속에서 몇 바퀴나 돌아가면서 질문 한가지 씩 계속해서 적어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림의 주인공은 자기 그림이 돌아오면 거기에 답을 적고 다른 친구의 그림에는 질문을 적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친구의 답이 무엇인지 읽어보고 자기의 질문을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친구들의 질문과 친구의 답을 통해 매우 다양한 생각을 떠올릴 수 있게 하는 작업입니다. 이 그림이 아닌 다른 어떤 그림이나 자료들을 가지고 해도 좋습니다.

### 03. 질문이 있는 미술수업

질문으로 학생들과 전체를 이끌어 간 수업의 실재를 보여드리면서 앞으로 이 수업의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질문으로 친숙해지는 정도가 되면 그림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안내해주어야 합니다. 질문 수업에서의 감상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상의 기본은 관찰입니다. 보고 또 보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궁금한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필자는 작품 감상을 시인 나태주가 풀꽃에서 말한 시 구절(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처럼 하라고 합니다. 그와 관련한 수업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4 학년 수업사례



포플러 밑에서 햇빛의 효과 - 모네-

모네의 그림 '포플러 밑에서 햇빛의 효과'를 보고 교사가 만든 질문에 답을 하면서 새롭게 구상을 해서 자신만의 그림그리기를 해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만든 질문으로 이끌어 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수업의 빠른 진행과 또 질문을 만들기를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위해 교사의 질문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도 관습입니다. 다만 답을 적고 난 다음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짝이나 모둠에서 충분히 이야기가 되면 수업은 더 효과적입니다.

교사의 질문은 같지만 아이들의 생각은 각기 다릅니다. 느낌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질문



(정신과 양극성장애와 관련된 조류 - 중세 문명 왕국 격자 1412)		내가 만난 적과 적통		(정신과 양극성장애와 관련된 조류 - 중세 문명 왕국 격자 1412)	
작가	모네	작가	모네	작가	모네
작품명	포플러 밑에서 햇빛의 효과	작품명 (작품이름)	포플러 밑에서 햇빛의 효과	작품명	포플러 밑에서 햇빛의 효과
소재지(보존하고 있는 곳)	슈투트가르트 국립 미술관	소재지(보존하고 있는 곳)	슈투트가르트 국립 미술관	소재지(보존하고 있는 곳)	슈투트가르트 국립 미술관
작품의 특징	나무가 구름이 깔려서 서 있을 같다	작품의 특징	가을 느낌이 났다.	작품의 특징	색이 아름답다.
어떤 재료로 어떻게 표현했나?	캔버스에 수채	어떤 재료로 어떻게 표현했나?	유채	어떤 재료로 어떻게 표현했나?	캔버스 유채
나무의 어떤 특징이 잘 나타나 있나?	구름이 깔려 있다.	나무의 어떤 특징이 잘 나타나 있나?	풍광의 나뭇잎을 잘 나타내었다. 가을 나무들과 나뭇가지. 적목, 초록, 연두로 한 나뭇잎.	나무의 어떤 특징이 잘 나타나 있나?	색깔을 여러가지로 표현하였다.
어떠한 선, 형, 색으로 나무를 표현했나?	부드러운 느낌이고 노란색과 갈색으로 색을 표현	어떠한 선, 형, 색으로 나무를 표현했나?		어떠한 선, 형, 색으로 나무를 표현했나?	여러가지 색과 나무뿌리를 잘 그렸다.
작가가 작품에서 나타내고 싶은 뜻?	나무가 여러 개 있으며 그들이 되지만 혼자서 아름답게 보인다.	작가가 작품에서 나타내고 싶은 뜻?	넓은 들판과 사람만 없다	작가가 작품에서 나타내고 싶은 뜻?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껴 보자
내 마음에 든 이유	대체 힘을 잡지 못 하지만, 환상적이지만 존재하는 나무가 마치 환상의 생명처럼 느껴진다.	내 마음에 든 이유	내가 좋아하는 가을 느낌이 나서 구름을 조금만 그리고 냈다.	내 마음에 든 이유	색깔이 여러가지고 나무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나와면 어떻게 보존하고 싶은가?	나와면 그들을 만들고 흔들어서 자연에도 나무를 그려주고 싶다.	나와면 어떻게 보존하고 싶은가?	모네 선생님의 연필로 그린 그림을 그릴 수 있었죠?	나와면 어떻게 보존하고 싶은가?	사람을 조금 넣고 나무가지를 더 자세히 나타내었다.
하고 싶은 말	대부분 외로워 보이는 작품인 만큼 나무를 그려 주겠다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	이 그림을 보니 마음이 편안해져서 좋아요.

단원 : 3-4. 미술 3. 주제를 살려서-(심화)1. 대상의 특징 표현하기  
 학습 주제 : 자연물 표현하기  
 학습 목표 : 주변의 자연물의 특징을 자세히 관찰하고,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그려 보는다.  
 준비물 : 화지, 붓펜, 12색 싸인펜, 돌보기, 4B연필, 지우개, 수채화 도구, 크레파스 등

그런 다음 주워온 나뭇잎과 나무껍질 등을 관찰하며 보고 그리기를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자신만의 나무 그리기를 했습니다. 같은 것을 관찰하면 같은 그림이 나올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 같은 대나무를 대상으로 그린 것이지만 각자 자신 만의 느낌으로 표현 하였습니다.



다른 나무를 그린 작품들입니다. 관찰 전과 관찰 후의 나무를 비교해 보면 관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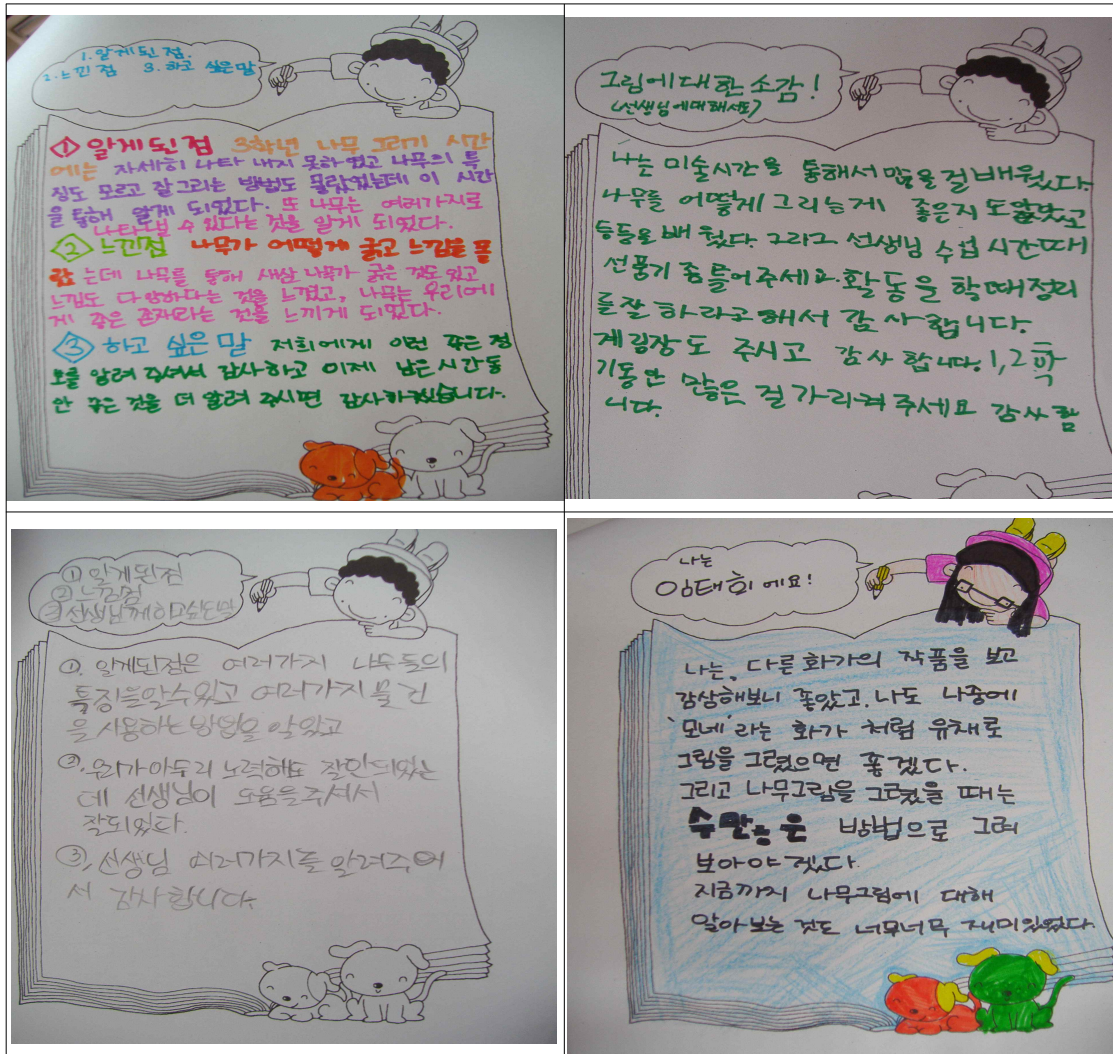
관찰 전		
관찰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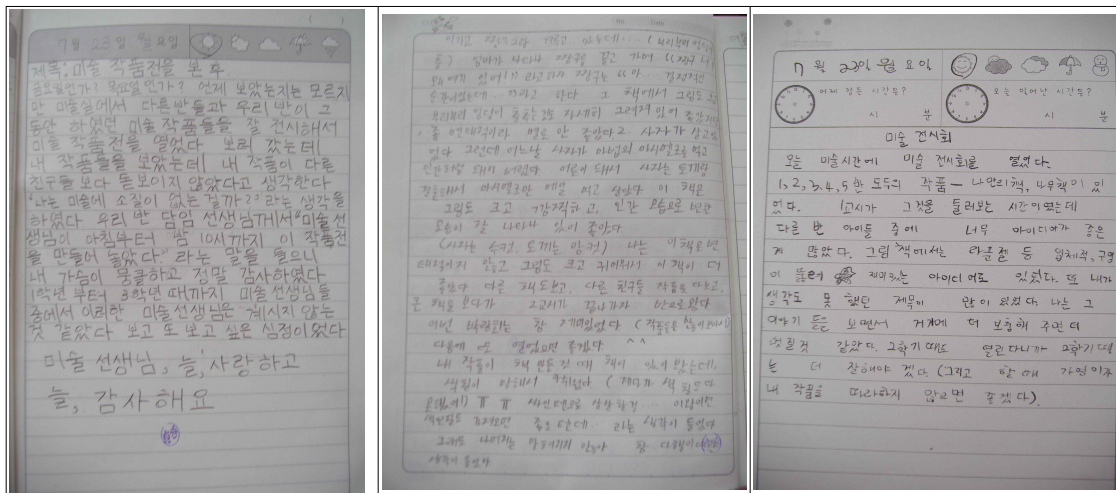
그리고 활동한 내용을 한권의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관찰 전에는 막연히 그렸던 개념화적인 나무그림과 관찰 후에 그린 관찰 나무를 비교하며 자신의 소감문과 함께 친구작품 감상 하기도 적어보는 형식으로 감상 수업으로 진행했습니다.



평소 습관처럼 생각했던 나무 그리기 → 질문 → 나무와 이야기나누기 → 관찰하기 → 부분 그리기 → 나무를 자세히 관찰한 후 그리기 → 소감문적기 → 친구작품 감상하기 → 전시 → 일기 쓰기

이렇게 진행된 수업은 친구와 함께 하는 협동학습을 훌륭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 작품 감상하기 효과도 남달랐지요. 나도 미술비평가가 되어 친구 작품에 대해 비평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기적기를 한 번 보시겠습니다.





그림그리기 수업이 그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기 즉 기록하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작업한 내용을 한 번 더 정리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작업이 잘 끝났습니다.